

봄 향기 품은 '거문도 해풍썩' 나왔네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첫 출하
여수시 꾸준한 투자 효과
청정 농산물 전국서 인기

다도해 최남단의 섬 여수 거문도가 봄을 알리는 향기로 가득하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대표 특산품인 '거문도 해풍썩'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가운데 다도해를 대표하는 파워브랜드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예년에 비해 따뜻한 날씨 덕에 한 달여 빠른 첫 출하를 시작한 거문도 해풍썩은 지난 18일부터 전국 e마트와 메가마트, 거문도 해풍썩영농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다.

가격은 2kg 한 상자에 2만4000원이며, 생썩은 물론 썩개떡, 썩송편, 썩분말, 썩차, 썩우유 등 다양한 가공품도 판매한다.

여수시는 거문도 해풍썩을 지역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쏟으며 집중 육성했다.

올해도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친환경 드론 방제, 썩대 제거 작업, 생 썩 출하 물류비 지원 등에 나선다.

이 같은 노력으로 청정지역 해풍을 맞고 자란 거문도 해풍썩은 정부의 친환경 인증이 강화된 상황에서도 2014년 7ha에



여수 거문도 주민들이 해풍을 맞고 자란 해풍썩을 수확하고 있다. 네모 안은 생썩. <광주일보 자료사진>

서 지난해 기준 2배가 넘는 16ha로 친환경 인증 넓이를 늘렸다.

생산 가구의 농가소득(195호)도 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의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일찌감치 전국판로도 확보했다.

썩떡과 썩진액, 썩분말, 썩차 등 다양한 상품 개발과 가공시설 확대로 가공상품 생산·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풍썩

힐링체험장과 훈증체험장, 해풍썩 스파체험장 등도 갖추고 있다.

시는 또 거문도 해풍썩의 브랜드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지식재산권 관리와 사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해외상표 등록을 추진, 2015년 12월 미국특허청에 공식 등록되는 성과를 이뤘다.

해외상표 등록으로 국내외 법적 권리 보장 등 국내 최고 브랜드로 자리 잡은 거

문도 해풍썩의 해외 판로 개척과 국내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됐다.

시의 특산물 상표보호 노력이 상품의 신뢰도와 가치는 물론 지역 재배농가와 제조업체의 소득을 높여 고용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이다.

실제 거문도 해풍썩은 매년 미국 LA한인축제 등에 참여해 지난해만 3억 2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미국 홈쇼핑 월드와 현재 납품 계약 협회에 한창이다.

여수시의 전격적인 지원 덕에 거문도 해풍썩은 지난 2017년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추진실적 평가 전국 1위 수상과 농식품 파워브랜드 3년 연속 선정, 친환경 6차 산업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등 명실상부한 최고의 농식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장인호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거문도 해풍썩은 돌산 갯과 함께 여수를 대표하는 농산물로 청정자연에서 자라 전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재배면적 확대와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정책 등 거문도 해풍썩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거문도에서는 195농가가 45ha 면적의 농지에서 연간 420여톤의 해풍썩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연간 44억원 안팎의 소득을 올렸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설 연휴 여수 기업 95% 휴무·86% 상여금

여수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대부분이 설 연휴 휴무와 함께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여수상공회의소(회장 박용하)에 따르면 지역 내 187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여수지역 기업체 설 연휴 및 상여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 94.9%가 설 연휴 휴무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5.1%는 쉬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응답률은 31.5%다.

설 연휴 휴무를 하겠다고 응답한 업체의 휴가 일수는 주말을 포함해 3일 3.6%, 4일 87.5%, 5일 이상 7.1%로, 평균 휴가 일수는 4.0일이었다. 이는 지난해 평균 5.2일보다 1.2일 감소한 수치다.

설 연휴 휴무를 계획하지 않는 업체들은 교대근무(100%)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여수지역 기업의 86.4%는 설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13.6%의 제조업체는 지급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해 상여금 지급 비율 84.2%에 비해 2.2% 상승했다.

지급 형태로는 정기상여금(39.7%), 일정액 지급(31.0%), 선물지급(29.3%)으로 구분됐다.

정기상여금 지급금액은 0-50% 미만(36.4%), 50-100% 미만(40.9%), 100% 이상(22.7%)이었고 일정액 지급 금액은 50만원(56.9%), 20만원과 30만원(15.8%), 50만원 이상(10.5%)로 조사됐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는 연봉제 시행(66.7%), 경기 어려움(22.2%), 자금 부족(11.1%) 순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설 연휴 기업의 자금 사정은 동일하다(67.8%), 악화됐다(27.1%), 나아졌다(5.1%)로, 지난해 동일하다(62.1%), 악화됐다(32.8%), 나아졌다(5.2%)고 답한 결과와 비교할 때 여수지역 기업이 느끼는 명절 체감경기는 조금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병식 여수상의 본부장은 "작년 설에 비해 연휴 기간이 짧지만 연휴 휴무 업체와 상여금 지급 업체는 증가했고 명절 체감경기도 역시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수국가산단 등 지역 대규모 투자로 인한 긍정적 기대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디오션리조트, 인사동 갤러리와 예술교류 업무협약



남해안 대표 종합해양휴양시설인 여수 디오션리조트가 서울 인사동의 갤러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여수디오션리조트에 따르면 지난 17일 여수디오션 호텔에서 디오션아트갤러리가 복합문화의 중심지인 서울 인사동의 인사아트프라자에서 예술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서울 지역 국내 대표 작가와 여수 지역 작가를 비롯해 양사 갤러리 관계자, 유광현 부사장 등 디오션리조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아트 디오션갤러리와 인사아트프라자는 앞으로 미술문화 저변확대는 물론 호텔 아트페어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동 선도에 나가기로 했다.

디오션리조트는 이번 협약으로 여수지역 중심 전국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작가 저변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콘텐츠

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은경 아트 디오션갤러리 대표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지역작가 교류전과 도시와 바다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도 활발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작품 판매교류전 등도 진행해 서울과 지역 간 문화 교류 등 지역민에게 폭넓은 작품세계를 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오션리조트는 국내 대표 현대 미술 작가의 작품을 매회 다른 콘셉트로 선보일 예정이며 아트디오션 갤러리 개관전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아트디오션 갤러리는 국내외 명성 높은 작가들의 대표작을 전시중이며 디오션리조트 방문객 누구나 작품 관람과 구매가 가능하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보육시설 독서로 마음열기'

프로그램 참여 단체 공모

여수시, 30일까지

여수시는 오는 30일까지 '보육시설 독서로 마음열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10개 단체를 공모한다.

보육시설 독서로 마음열기는 강사들이 직접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정보문화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찾아가 심리 상담과 독서 지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대상은 정보문화 소외계층이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신청서를 도서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하면 된다.

운영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한 단체당 36회를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현암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GS칼텍스, 설맞이 사랑의 떡 나눔 '훈훈'

지역 대표기업 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가 설을 맞아 여수지역 소외이웃과 온정 가득한 뜻깊은 시간을 나눴다.

GS칼텍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여수시 소재 GS칼텍스 사랑나눔터에서 '설맞이

사랑의 떡 나눔 행사'를 가졌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권오봉 여수시장과 신미경 여수시복지보장협의회 부위원장, GS칼텍스 김형국 사장, GS칼텍스 퇴직사우 봉사단 및 여수지역 봉사단 등 30여명이



봉사자로 참여해 사랑 나눔을 펼쳤다.

봉사자들은 이날 GS칼텍스가 10년 넘게 운영 중인 무료급식소 '사랑나눔터'를 방문한 여수지역 결식우려 어르신 등 소외이웃 400여명에게 맛있는 떡국(점심)을 대접했다. 식사 후에는 시루떡과 인절미, 팥떡이 담긴 떡 세트와 떡국용 떡을 선물해 훈훈한 설날 온정을 더했다.

이날 어르신들께 제공된 떡 세트는 사회계기업인 여수 시니어클럽에서 제공해 눈길을 끌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사랑나눔터를 찾는 어르신들께 단순한 한끼 식사 제공이 아닌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사랑나눔터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5월 처음 문을 연 GS칼텍스 사랑나눔터는 매주 5일 동안(월-금)하루 350여명의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무료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지역사랑을 펼치고 있다. 개소 후 지난해 말까지 이곳을 이용한 지역 소외 이웃만 총 94만 6000여명에 달한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